

[종합·해설]

광주시 '내년 문화수도 사업' 무슨 내용 담았나

사직공원 일대 국제문화타운 만든다

亞도시역사 박물관·청소년 문화 센터 조성

문화 환경·예술 진흥·관광산업 육성 집중

광주시가 3일 심의 확정한 '2010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안'은 광주 문화수도의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내년에 추진키로 한 신규 사업은 모두 7건으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에 집중돼 있다. 이는 오는 2012년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의 개관에 맞춰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문화수도 조성에 맞춰 도심에 새로운 힐링을 불어넣기 위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연계 도심문화거점 재생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2010년~2016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광주시 동구 일대에 있는 도심 인접 교육시설, 공공시설 재활용, 리모델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심의 상장공간인 극장 등 문화예술공간을 문화자원으로 재생하는 프로그램도 가시화된다.

눈에 띠는 신규 사업은 '아시아 도시역사 박물관 건립'이다. 모두 7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 광주 민속박물관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도시 박물관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전문박물관인 도시 역사 박물관은 아시아 도시의 태동과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과 사진자료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의 역사 전시실, 도시역사를 접대성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광주시 동구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 '아시아 청소년 컬처 콤플렉스(Culture complex)'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

격화된다. 청소년 컬처 콤플렉스에는 청소년 전용카페, 공연장, 전시실 등이 들어서며 청소년에게 각광받고 있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도 마련된다.

사직공원 일대를 국제문화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첫삽을 뜯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뼈대는 사직공원 일원에 아시아 음악타운을 조성하고 아시아 다문화 전통음악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의 하나인 '시각 미디어 문화권 기반조성' 사업도 2019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북구 중외공원을 아시아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고 응봉제, 운암제 등을 정비해

2010년 문화수도 연차별 주요사업

사업	세부사업	예산
문화도시 환경조성	문화전당 연계 도심문화거점 재생 아시아 청소년 Culture Complex 건립 아시아 도시역사박물관 설립	270 60 78
예술·문화 관광산업 육성	광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광예술장르 개발 e-스포츠대회 개최	200 6 6
문화교육 역량강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운영 문화교류 및 예술전문인력 양성 아시아문화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아시아문화포럼 개최	100 9 9 4
	전국단위 문화네트워크 구축	3

(단위: 억원) 작곡 및 사업화 지원(국제 캐리터 공모전) ▲글로벌 공연 및 인재양성 ▲공연예스포 개최 등이다.

또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승인이 이뤄졌으나 예산 미확보로 추진되지 못한 19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아시아 문화적 도시환경 인프라 조성사업(아시아 음식 문화지구·중외 인터랙티브 미디어 파크 조성) ▲아시아적 도시경관 지침 개발 및 모델화 사업

(건축문화도시 조성, 국제 도시경관·건축 문화제 개최, 문화전당 주변 도시경관 형성 사업) 등이다. 여기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광 산업과 예술을 접목하는 광 예술장르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문화수도 광주의 미래를 기약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태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10년 문화예술공원 리노베이션 세부계획수립 및 용봉제 수변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공예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관심을 모은다. 주요 사업은 ▲광예파크(창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위기 극복 고통 분담 대타협 머리 맞댄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출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 회의가 3일 오후 3시 서울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고통분담의 대타협을 위한 한 달의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각 경제주체들이 미증유의 경제난을 체감하고 있는 탓인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직후의 노사정 비상시국 회의체보다 덩치가 더욱 커졌다. 대책회의는 발족 선언문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인식을 함께한다"며 "노사민정 각 주체는 개

별 이익보다는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경제 위기 극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노사간 고통분담을 위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등 고용안정대책, 취약계

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사회적 합

의의 전파와 정부지원책 등의제를 두고 5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이

달 23일까지 대타협을 도출할 계획이다.

노사 대표로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

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참석했다. 시민단체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6일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종교계에서는 한국주교회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이 참석해 천주교

와 개신교, 불교를 대표했으며, 사회원로로

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성대석 언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대표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보

건복지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대모 위원장, 기획재정부 하경숙 차관, 지

식경제부 임재민 차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협의가 정부와 세계의

맞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책회의

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U대회 광주 유치 시민 힘으로

오늘 각급 기관·단체 참여 범시민지원협의회 창립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 대회) 광주 유치 불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이 본격화된다.

광주시의 유치를 지원할 범시민 지원주진협의회가 4일 오전 11시 광주시 청 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범시민주진협의회는 지역 체육계를 비롯한 광주 시의회 의원,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 경제, 종교, 언론, 학계, 학생 등 각급 기관과 단체 대표 60명으로 구성됐다.

범시민주진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지원단과 광주시 5개구 지원단 구성안, 활동 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별시민 주진협의회는 U대회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5월 23일까지 국내 유치 불 조성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 환영행사 등 주요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광주시는 시민의 유치 열기와 대회 유치의 관건이라고 보고 범시민지원주진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구별로는 오는 13일 광주시 서구를 비롯한 동구(23일), 남구(24일), 광산(25일), 북구(26일)

도 잇따라 U대회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유치 불 조성에 나선다. 현재까지 각구 지원단에는 시민 15만 명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시의 해외 유치전도 본궤도에 오른다. 현재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벨기에 브뤼셀·프랑스 등지에서 U대회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봉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U대회 유치단도 내달 17일 중국 하얼빈에서 해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계 U 대회(18일~28일)

개최지인 하얼빈에서 열리는 FISU 총회에는 표결에 참여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시장과 광주 U대회 유치위원들은 유치위원 전원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득표권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와 유치위원회는 범시민지원주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시민의 유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라며 "시민의 열원과 기대가 모인다면 반드시 U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李대통령 美 리더십으로 세계경제 회복되길

オバマ 한미동맹 발전 위해 함께 노력하자

한·미 정상 첫 전화통화

리쳐야 한다.

▲이 대통령=세계 경제가 1차 대공황 때 얻은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가 살아야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 미국의 리더십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달중 헬로우(Hello). ▲오바마 대통령=안녕하세요(한국말로).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 공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 딛을 절을 알게 됐고,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통찰력이 소중한 교훈이 됐다.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

▲이 대통령=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경제정상회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뿐

리쳐야 한다.

▲이 대통령=이달중 헬로우 클린턴 국무장관을 방한토록 했으나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어제 슈퍼볼 결승전에서 내가 응원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이겨서 기뻤다. 특히 그 팀에 한국계 하인스 워드 선수가 소속돼 있지 않느냐.

▲오바마 대통령=나도 그 팀을 응원하는 팬이다.

▲이 대통령=피츠버그 팀이 극적인 역전을 했는데 미국 경제도 이처럼 역전하시길 바란다.

▲오바마 대통령=(크게 웃으며) 감사하다.

/연합뉴스

무안 – 장새(장가게) 무안 – 삼해(방죽) 무안 공항 직항!!!

• 광주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제 회대와 판촉회를 주는 광주 MBC 문화탐방 홈페이지 www.mbc.or.kr

• 기존의 대기기 사용과 차별화 다릅니다

무안 – 장새(장가게) 직항!

• 광주 MBC 문화탐방 홈페이지 www.mbc.or.kr

• 국제 회대와 판촉회를 주는 광주 MBC 문화탐방 홈페이지 www.mbc.or.kr

무안 – 삼해(방죽) 직항!!!

• 광주 MBC 문화탐방 홈페이지 www.mbc.or.kr

• 국제 회대와 판촉회를 주는 광주 MBC 문화탐방 홈페이지 www.mbc.or.kr